

70년 청룡기 고교야구 사흘간 41연속이닝 투구 87년 MBC 청룡서 전경기·전이닝·전타석 출장

김종건의 아날로그 베이스볼

프로 원년멤버...배재고 감독 **이광은**

“A는 받았지만 A+를 받지는 못했다”는 남자. 팀에선 모든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정말 요긴한 선수였지만, 국가대표 선발 때는 그 포지션의 최고에게 밀렸다. 한국시리즈 결승 홈런 같은 강렬한 인상도 없다. 그러나 굵은 소나무가 산산을 지키듯 이광은(57)은 언제나 팀을 위해 몸을 던졌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으면 손해를 감수했다. 프로 10년간 90홈런 473타점에 타율 0.283을 남기고 선수생활을 마쳤다. 다양한 지도자 경험을 거쳐 프로야구 감독 자리에도 올랐다. 지금은 모교 배재고의 감독으로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현역시절 투수-야수-포수 포지션 상관없이 OK!
70년 청룡기 사흘동안 879개 공 뿌려 '무쇠팔'

87년엔 몸아파도 매경기 나가고 싶어 좀 쉴려
전경기·전이닝·전타석 출장 상상 못할 대기록
술 마시고도 매일 1000개 스윙·새벽 로드워크

아직 내 머릿속에 LG...경기 꿈꿔 행하며 응원

●1970년 청룡기의 전설로 남은 41연속이닝 투구

1970년 청룡기고교대회에서 배재고는 4강에 들었다. 이광은의 초인적인 연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중앙고와의 승자 준결승에서 연장 13회까지 0-0으로 비긴 뒤 다음날 서스펜드타 경기에서 20회까지 이어 던졌다. 0-4로 패했다. 20분 뒤 대전고와의 패자부활전에서 또 등판했다. 1회부터 선발을 구원해 9회까지 완투했다. 4안타만 내주고 1-0 완봉승. 다음날 군산상고전에서 12회까지 또 던졌다. 41연속이닝 투구라는 초인적 기록을 세웠다. “사흘간 879개의 공을 던졌다. 당시 우리 팀 선수가 11명뿐이었다. 하기가 똥이 부정선수 시비로 등판할 수 없어 3루수였던 내가 던졌다. 신성철 당시 감독이 경기를 포기하자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다. 내가 안 되면 우리 팀은 포기라는 생각만 했다.”

연세대에서도 3루수 겸 센터로 뛰면서 팀의 필요에 따라 마운드에 올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포항제철 창단 멤버로 입단했다. 월급이 18만원이었다. 팀이 원하면 어디라도 나가는 유틸리티 선수였다. “79년 실업과 대학 선수들이 출신고교별로 출전하는 제1회 야구대제전이 열렸다. 그 때도 하기는 등판하지 못했고, 내가 1차전 대전고전에 등판했다. 2차전 중앙고와 경기 때는 신원호가 투수, 내가 포수였다. 그 경기로 모든 포지션을 다 뛰었다.”

성투에 입대해 제대를 앞둔 무렵 프로야구가 탄생했다. 27세 때였다.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MBC 청룡도 A급 대우를 해줬다. 계약금, 연봉 각 2400만원씩이었다. 그 돈으로 서울 봉천동에 23평짜리 아파트를 1800만원에 샀다. “82년 4월 말 제대하고



이광은 배재고 감독은 스스로에 대해 “A는 받았지만 A+를 받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팀에선 늘 요긴한 선수였어도 태극마크는 달 수 없었던 사나이. 그러나 그는 언제나 팀을 위해 몸을 던지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진짜 ‘남자’였 박학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 스포츠동아 DB



이광은은? ▲생년월일=

1955년 6월 28일 ▲출신교=배재고~연세대(우투우타) ▲프로 선수경력=1982년 MBC~1990년 LG(1991년 시즌 후 은퇴) ▲프로통산성적=10시즌 923경기 3279타수 929안타(타율 0.283) 90홈런 473타점 475득점 119도루 ▲프로수상경력=1986년 최다안타 1위, 1987년 득점 1위, 골든글러브 4회(1984년 3루수·1985년 좌익수·1986~1987년 외야수)

5월 2일 해태전에 처음 출장했다. 82년 초부터 군에 있으면서 MBC로부터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아내 몰래 원 없이 술을 마시고 돈도 썼다.”

●프로 초창기 MBC의 아련한 기억

술을 좋아했고 사람도 좋아했다. 만화가 허영만 화백을 비롯해 많은 이들과 잘 어울렸다. 남자다웠던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술을 잘 먹는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술집을 지정해놓고 언제든지 가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다. 훈련도 열심히 했다. 매일 1000개의 스윙은 거르지 않았다. 새벽 로드워크도 마찬가지였다. 꾸준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었다. 동계훈련 때면 벤치프레스 등 개인 웨이트트레이닝 장비를 가지고 다녔다.” 1982년 MBC 선수들에게 백인천은 야구의 신이었다. 체력도 기술도 상상 이상이었다. “(백 감독은) 장거리 러닝을 해도 중위권에 들어올 정도로 체력이 좋았다. 타격기술은 말할 것이 없었다. 노림수가 달랐다. 히트앤드런 사인을 낼 때 들어올 공을 예상하고 그 공간 치라고 했다. 다른 공이 들어오면 타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정말 그 공이 왔다. 전지전능한 도사 같았다. 훈련도 엄청 많이 시켰지만 백 감독의 말이라면 120% 확실하고 따랐다.”

●1982년 애플랜드 내한경기, 이광은의 마지막 불꽃피칭

1982년 10월 한국프로야구 탄생을 기념해 메이저리그 애플랜드 브레이크브스가 방한 친선경기를 펼쳤다. 당시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홈런기록의 헝크 애런과 은퇴한 에니 벅스, 빌리 윌리엄스 등도 함께 했다. 예정됐던 한국프로야구스타와의 경기를 마친 뒤 해

프닝이 생겼다. 만한 자리에서 애런이 한국프로야구를 알보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용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이 “한 경기를 더 하자”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당시 프로야구스타는 박영길 감독이 지휘했다. 이광은은 포항제철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윤동균에게 말했다. “재들은 내가 던져야 이길 수 있다. 형이 감독을 설득해달라”고. 경기 전 심판실을 찾았다. “오늘 내가 힘든 상황이 오면 벨트를 만질 테니 잘 봐달라”고 인사했다. 이광은은 완투했다. 바깥으로 빠지는 슬라이더는 심판의 도움으로 모두 스트라이크였다. 4-3으로 이겼다. “그날 피칭으로 어깨가 망가졌다. 이후 마운드에 올라가지 못했다.”

●1983년 KS 패배, 감독 보이트 파동 등 아쉬움도 많아

백인천~김동엽(좌고)~어우홍~배성서 등 MBC 시절 많은 감독을 모셨다. 기쁜 때가 많았지만 아쉬웠던 기억도 남는다. 김동엽 감독과는 악연이었다. 1983년 경기 도중 몸싸움도 했다. 야구를 그만 두려고 했다. 1988년에는 동료들이 신임 배성서 감독을 보이 못하는 바람에 마음고생도 했다. 주장 겸 삼조회장으로 바른 말을 했지만 동료들이 감독을 거부하는 투표를 했다. 동료들에 실망해 유니폼을 벗으려고 했다. 시즌 뒤 야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며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바람에 경제적 손해도 컸다.

1983년 한국시리즈도 불운했다. 1차전에서 이광은에게 날아온 타구 2개가 모였다. “1회 김성환의 땅볼이 부러진 배트 헤드와 함께 날아왔다. 앞으로 달려들 수 없었다.(결국 실적으로 기록) 5회 김봉연의 타구는 3루 모서리를 맞고 바운드가 죽어버렸다.

내 능력 이상의 공이었다.” 결국 MBC는 1승도 올리지 못하고 해태에 1무4패로 무너졌다.

●1987년 전 경기·전 이닝·전 타석 출장 투혼

1987년 상상 못할 기록을 세웠다. 108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전 이닝, 전 타석에 출장했다. 그 해 MBC의 3루수 자리는 오직 이광은의 것이었다. “시즌 도중 아프기도 했고 감기에 걸린 적도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한번도 내 자리를 남에게 내주지 않았다. 매일 경기에 나가고 싶어 좀 쉬실 때였다. 시즌 마지막 롯데전을 앞두고 타율이 딱 3할이었다. 유백만 당시 감독대행이 3할로 끝내자고 했지만 내가 나가겠다고 했다. 결국 4타수 무안타를 쳐서 타율이 0.298로 끝났지만 후회는 없다.” 이광은은 그런 남자였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일이라면 책임은 확실하게 졌다. 1990시즌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기적같이 회복해 할 일을 했다. 1991시즌을 마치고 유니폼을 벗었다. 현역 육성은 있었지만 팀의 세대교체를 위해 희생했다. 이후 지도자로 많은 선수를 만났다. 이제 환갑도 머지않은 나이. 두 딸도 시집보냈다. 아내와 오순도순 살아야 할 나이지만 선수 합숙소에 지내며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 아직도 LG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았다. 후배 조계현의 권유로 올해 LG의 고사에도 참가했다. TV로 친정팀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코치시절 모셨던 이광환 감독과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인다. “스스로 결정해왔던 인생에 후회는 없다. 야구만 하다보니 이제에 밝지 못했다. 먹고 살만 큼은 벌었다. 아내와 두 사람 사는데 큰 걱정은 없다.”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keon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 없이 강한 남자! “뉴 맨”!!



대표이사 서영숙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일본지사 T. 03-6278-9461
• 중국지사 T. 0433-286-5031

▶남자는 원한다!

킨제이 보고서는 성인남성의 평균 성생활 횟수가 20대 하루 1회, 30대 주 4회, 40대 주 2회, 50대 주 1회, 60대는 월 3회 정도라는 보고를 낸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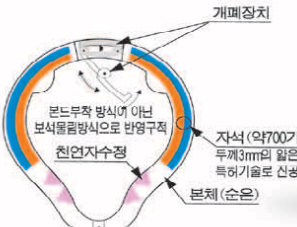
그러기에 확대와 조루에 관한 비뇨기과적 시술을 생각하는 남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확대시술 등은 모양이 변형되어 자연스러움을 잃을 수 있고 시간이나 금전적 면에서도 막심 실행에 옮기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바꿔 '뉴 맨' 체함을 먼저 권해 드린다. '뉴 맨'은 자연 그대로 커지고 굵어지면서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와 함께 보다 많은 횟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짧고 발기력에 아무 문제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는 남성이나 발기강직도가 약하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이상의 남성에게도 똑같은 효능을 나타낸다. 대한민국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성기능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특허를 받은 '뉴 맨'은 출시 8년에 40만에 가까운 고객과 일본, 중국,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동·정맥위치를 역할을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 천연자수점의원칙 위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상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집을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써 새벽의 강한 발기와 관계 시의 힘찬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4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까지 사용하고 있다.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통통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 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15일사용 후 이유 없는 반쯤, 전액환불!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NAVER D2H에서 [뉴 맨]을 검색하세요

뉴 맨! 30만 고객들과 전세계 20여개국 수출!

T.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1 한도빌딩 6층 위케이엔제이스포츠

男子는 힘이다!

30~80대까지 힘차고 활력 있게!

한번 먹으면 꼭 다시 찾는 힘! 힘! 힘!
손가락 들 힘만 있어도 생각한다는 그 힘!

그 힘을 보충해 드립니다.

식약청 심사기준 통과 미국직수입품으로써
식품에서 채취한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없으며 효과가 너무 좋아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실망했던 남성들이 한번만 먹어 보면 꼭 다시 찾는 제품입니다.



남성용

효과없을시 반쯤, 환불

1577-0139, 010-7533-3346